

## 생성형 AI와 신앙의 양립 가능성 연구 : 창세기 2:15, 퍼스의 탐구 이론,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중심으로

박영진 침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mpatibility potential of utilizing generative AI in the life of faith. First,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perception of generative AI among Christians through the latest statistical data, and demonstrate that such survey results cannot answer the question of theological legitimacy regarding generative AI use. Additionally, it points out that existing theological discussions on AI have failed to address the fundamental question, "Is it possible to use generative AI in the area of faith?" from the perspectives of biblical grounds and Christian philosophy. Thus,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s created by God through a lexical and theological meaning analysis of כָּנָעַר in Genesis 2:15. It then epistemologically examines the use of AI in inquiry through Peirce's theory of inquiry, and investigates the inherent area of faith through Pascal's *L'ordre du coeur*. By combining these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compatibility potential of generative AI and faith, and presents its implications.

**Key Words:** generative AI, faith, Genesis 2:15, Peirce's theory of inquiry, Pascal's *L'ordre du coeur*

### I. 들어가는 말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의 일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4). 대한민국 성인 기준(18~65세)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75%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4).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AI를 업무에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4). 또한 Anthropic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한국인이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비율은 51.1%로 동아시아 4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송하운·이병준, 2026: 7).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대인이 AI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업무 효율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은 AI의 일상화의 가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AI의 일상화에 점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최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AI 인식에 관한 상세 현황을 살펴본다. 목회자는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신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도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9). 이 두 집단이 AI 활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야는 주로 설교 사역과 신앙 콘텐츠 부분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7, 9). 목회자 집단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하는 것에 9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설교문 점검과 평가를 AI에게 맡기는 것을 77%가 긍정적으로 보았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 AI를 활용한 설교 주제 선정은 7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설교문 작성은 44% 정도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 반면 성도들의 인식은 달랐다. 성도들은 AI를 활용한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에 66%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설교 주제 선정이나 설교문 작성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50%를 넘기지 못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 그런데 AI를 활용한 신앙 콘텐츠, 교회 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문에서는 앞선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목회자 집단과 성도 집단이 모두 AI 맞춤형 신앙서비스 도입과 AI를 활용한 교회 행정 전산화에 60%가 넘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9-10).

앞선 통계는 현재 그리스도인이 AI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다수의 찬성이나 반대의 결과가 신학적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AI를 사용하여 설교의 예화나 자료 수집 하는 것을 93%의 목회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과,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분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앞선 통계에서 그리스도인이 AI 활용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타낸 분야가 설교와 신앙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AI의 사용이 단순히 업무에서의 활용, 검색 등을 넘어 신앙 영역에서의 활용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컨대, 만약 초신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앞선 통계 자료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다른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sup>1)</sup>, 이 질문에 관한 신학적 정당성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I 활용에 관한 신학적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AI 활용의 신학적 논의는 AI를 활용한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AI와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 등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탐구의 영역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검토하여 결론을

---

1)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 남침례회의 AI 챗봇인 FaithBot이 새신자의 학습 도우미로 활용되었다는 사례가 있다(Faith4, 2026. 4. 23.). 하지만 이는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사용한 사례에 불과하다. 오히려 충분한 성경과 신학적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AI의 답변을 그대로 신뢰할 경우,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Faith4, 2026. 4. 23.).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앞선 질문을 성경적 근거와 기독교 철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AI 활용 문제를 성경적 근거와 기독교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네덜란드 철학자 도어베르트(Dooyeweerd)에 따르면, 모든 참된 지식은 참된 자아의 인식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연결된다(Dooyeweerd, 1984: 560).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AI를 활용한 탐구를 검토할 경우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과 기독교 철학이 제공하는 인식론적 틀 안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성경 원어의 어휘 분석과 기독교 철학적 관점을 융합하여 앞선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세기 2:15의 **רָבַע** 어휘 분석과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퍼스의 탐구 이론과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L'ordre du coeur*)를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탐구를 지향하되, 이성이 신앙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신앙과 생성형 AI의 양립 가능성에 적용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성경 원어의 어휘와 신학적 의미 분석, 철학적 문헌 분석 방법론을 사용한다.

## II. 창세기 2:15의 **רָבַע**가 나타내는 신학적 의미

창세기 2:15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원어는 **רָבַע**(*abad*)와 **רָמַשׁ**(*šamar*)이며, 이 단어의 의미는 각각 ‘일하다’, ‘지키다’이다(Brown et al., 1977: 712, 1036).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그가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그 행동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 본문을 원어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 1. **רָבַע** 어휘 분석

본 장의 도입부에서 **רָבַע**와 **רָמַשׁ**의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각각 살펴봤을 때,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רָבַע**와 **רָמַשׁ**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어의 기본 의미만으로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도출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신학적 의미를 도출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어 구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깊은 신학적 의미는 히브리어 구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뜻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좀 더 상세한 사전의 뜻 풀이와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רָבַע**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섬기다’, ‘개발하다’, ‘경작하다’라

는 뜻도 가지고 있다(Ringgren et al., 1999: 377-378). 이 단어는 주로 땅(הָאָרֶ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Ringgren et al., 1999: 382-383). 이 단어의 특징을 봤을 때, ‘왜 땅을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거하거나 땅을 일구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땅을 목적으로 포함한다(Williams, 2014).

“הָרִמְשָׁלִי הָרִבְעָל נָתַע נֹבַח הַחַיִּי סָאֲרָהָא סִיחָלָא הָדָרִי הָקָרִי”(창 2:15, BHS)

창세기 2:15에서 רָבַע는 전치사 לְ를 포함한 부정사 연계형의 형태(הָרִבְעָל)로 쓰였다. 히브리어에서 부정사는 동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전치사 לְ를 포함한다(Waltke & O'Connor, 1990: 598, 600). 부정사의 기능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절대형으로 사용되거나, 추가 목적어나 전치사 등이 없이 대명접미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명사의 의미로 해석한다(Waltke & O'Connor, 1990: 600). 둘째, 목적어나 전치사구로 사용될 때는 동사적 술어(verbal predicator)<sup>2)</sup>로 해석한다(Waltke & O'Connor, 1990: 600). 이 법칙을 바탕으로 창세기 2:15의 הָרִבְעָל을 살펴보면 לְ + 부정사 연계형' 구조로 되어 있고,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접미사<sup>3)</sup>가 직접 목적으로 기능하기에 동사적 술어로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사 연계형 앞에 붙은 לְ는 이유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에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Williams, 김영옥 역, 2012: 121). 따라서 הָרִבְעָל은 목적절을 포함하는 문장 안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보인다. 왜냐하면 창세기 2:15를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가 그(사람)을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 정착하게 하셨다.”인데, הָרִבְעָל을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רָבַע의 구약 내 용례를 살펴보면 총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이나(사 19:9),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며(창 29:5; 31:6),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다(출 3:12)(Matthews, 1996: 209). 또한 이 단어는 성막(또는 성전)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묘사하기도 한다(Matthews, 1996: 209).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과 관련하여 생각해봤을 때, רָבַע로부터 רָבַע(‘ebed)<sup>4)</sup>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Harmon, 2020: 20). 창조 당시에는 에덴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창 2:5),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서 창조하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다(Harmon,

2) 동사적 술어란, 부정사 연계형이 목적어 또는 전치사구를 지배(govern)할 때 동사적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Waltke & O'Connor, 1990: 600).

3) הָרִבְעָל에 있는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접미사의 지시 대상에 관하여 기동연(2008)은 두 가지를 논의한다. 첫째, רָבַע가 주로 הָאָרֶץ(땅, 여성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점에서(Ringgren et al., 1999: 382-383) 접미사가 הָאָרֶץ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창 2:5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때 목적어는 에덴 밖의 광범위한 땅이므로 에덴 안의 땅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기동연, 2008: 24). 둘째, קָרַע는 보통 남성형이지만, קָרַע는 여성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Waltke & O'Connor, 1990: 104). 따라서 קָרַע의 영향으로 여성형으로 취급되기에 창 2:15의 구문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본다.

4) רָבַע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남성 명사이다(Brown et al., 1977).

2020: 20). 따라서 **רָבַע**는 ‘종으로서 섬긴다’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רָמַשׁ**가 창세기 2:15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 **רָמַשׁ**는 앞서 언급한 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감사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다(García-López, 2006: 286). 이 중에서 창세기 2:15의 용례는 ‘지키다’ 또는 ‘돌보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Gabrielson, 2014; Brown et al., 1977: 1036). 왜냐하면 **רָמַשׁ**의 주체가 돌보는 대상보다 더 상위의 개념일 때 ‘돌보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רָמַשׁ**도 창세기 2:15에서 부정사 연계형 형태(**רָמַשׁלִּי**)로 사용되었다. 이 부분도 **הָרָבִיעִי**와 마찬가지로 **לְ** + 부정사 연계형 구조임과 동시에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접미사가 직접 목적어로 기능하기에 동사적 술어로 해석해야 한다. 이 부분의 뜻을 직역하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명접미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הָרָבִיעִי**와 동일하게 **הָאֵדֶן**라고 이해하면 된다.

**רָמַשׁ**의 구약 내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창세기 2:15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용례를 위주로 살펴본다. 첫째, **רָמַשׁ**는 구약에서 ‘언약’과 ‘법’이라는 흐름에서 사용한다(García-López, 2006: 289-290). 언약과 법이라는 말은 주로 이 단어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말한다(García-López, 2006: 290). 둘째, **רָמַשׁ**는 구약에서 제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며, 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용법이다(Harris et al., 1999: 939). 창세기 2:15의 **רָמַשׁ**가 제의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유는 에덴을 최초의 성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Beale, 강성열 역, 2014: 88-94).<sup>5)</sup>

정리하자면, **רָבַע**는 단순한 경작의 의미뿐 아니라, 좀 더 확장하여 레위인의 성전 봉사와 종으로서의 섬김을 뜻한다. **רָמַשׁ**는 언약과 율법의 준수, 제사장적 직무 수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두 단어가 민수기 3:7-8; 18:7; 대상 23:32 등에서 레위인의 성막예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Harmon, 2020: 21-22), 창세기 2:15의 **רָבַע/רָמַשׁ**가 단순 노동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넘어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두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 2. 창조된 인간의 특성 : 하나님을 아는 삶의 의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8).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창 2:15),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노동을 하고 그곳을 지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 정도 존재한다. 첫째, 이 부분은 **רָבַע**와 **רָמַ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에 등장한 단어인 **נוֹחַ**(nûah)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נוֹחַ**의 뜻은 ‘어떤 곳에 안착하다’, ‘머무르게 하다’, ‘특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의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이다(Harmon, 2020: 20). 흥미로운 점은, 이 동사의 히필형이 제사장의 의복, 성전의 여러 기구, 거룩한 물건들, 왕을 위한 규정 책 등 성막이나 성전의 물건을 두는 동작의 형태로 자주 사용된다(Harmon, 2020: 20). 단어의 이러한 용례를 통해, Beale(2014)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이라는 성전에 두어 그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정리했다(Beale, 강성열 역, 2014: 89-94). 둘째,

5) 이 내용에 관해서는 II-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은 ‘일하고 지키게’하기 위해서이다. ‘일하다’와 ‘지키다’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의미로 도출될 수 있다(Harmon, 2020: 20). 앞서 살펴봤던 **עָבַד**의 용법을 고려했을 때, 아담이 행했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라기보다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림과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Harmon, 2020: 23-24).

여기서 의미를 확장해야하는 부분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개념이다. II-1절에서 **עָבַד**에서 **עָבַד**가 파생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עָבַד**의 상대 개념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אָדוֹן**(*ādôn*)이다(Jeremias & Zimmerli, 1964: 656-657). 즉, **עָבַד**는 주인에게 종속된 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sup>6)</sup>, 주인의 집에서 제사적 교제(cultic fellowship)를 하는 행위로 확장 해석할 수도 있다(Jeremias & Zimmerli, 1964: 657). 여기서 제사적 교제란 하나님 앞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제사적 교제는 삶에서의 예배와 연결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창세기 2:15에 담긴 **עָבַד**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의 예배’를 포함한 복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וָשָׁמַר**도 **עָבַד**의 관점에서 비슷하게 확장 해석할 수 있다. **וָשָׁמַר**의 기본 개념은 ‘매우 신중하게 돌보다’이며, 구약에서의 용례를 참고하면 언약의 의무나 법과 규례 등을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 지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Harris et al., 1999: 939).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rris et al., 1999: 939). 나아가 이 표현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용된다(Harris et al., 1999: 939). 따라서 **וָשָׁמַר**도 단순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에덴 동산을 사람이 보존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sup>8)</sup> 이는 II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연결될 수 있다(Harris et al., 1999: 939).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Torrey, 1898: 474). 예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낸다(Torrey, 1898: 474).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요 4:23~24; 시 29:2; Torrey, 1898: 474), 이는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알다’라는

6) 이와 함께, 창세기 2:15 **עָבַד**에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신 것이 쉼을 위해서라고 이해하는 선행연구가 있지만, **עָבַד**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본문에서의 **עָבַד**는 우리가 이해하는 ‘쉬’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Jeremias & Zimmerli, 1964: 657). 창세기 2:15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은 일을 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한정진, 2016: 75).

7) 구약에서는 세상의 일과 제사의 의미에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McCaulley, 2014).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봐야하는 관점을 지지한다.

8) 앞서 II장 1절에서 의 주체가 상위의 개념일 때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 주체가 하위 지위일 때는 ‘순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Gabrielson, 2014). 이는 사람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개념에서는 돌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יָדָע**(yāda')가 많이 사용되었다<sup>9)</sup>. **יָדָע**의 용례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경외할 수도 있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Botterweck & Bergman, 1986: 469-470).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Botterweck & Bergman, 1986: 469).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이다(Botterweck & Bergman, 1986: 469).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용례에서 종교적 경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기반으로 파생된 뜻을 알 수 있다(Botterweck & Bergman, 1986: 469).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수반한다고 설명하셨다. 이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MacArthur Jr., 2014). 요한복음 4:22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인데,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MacArthur Jr., 2014).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 4:2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분이다(Grudem, 박세혁 역, 2024: 1137).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0)</sup>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메시아 예언에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시 16:10; 22:16, 18; 69:21; 사 53:9 등). 또한 바울의 아테네 전도 장면에도 힌트가 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1)라고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1)</sup>

정리하자면, 창세기 2:15의 **רָמַשׂ/רָבַע**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삶에서 나타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יָדָע**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에 근거를 두고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토대로, III장과 IV장에서는 기독교 철학

9) **יָדָע**는 구약 전체에서 파생어를 포함하여 1,058회 사용되었다(Hamilton, 채정태 역, 2016: 57).

10) Grudem은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보유하길 원하면, 성경 공부를 하길 권면한다(Grudem, 박세혁 역, 2024: 222).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롬 1:2; 16:25~26)이기에 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11)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 유형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시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에 기초한다(Goldsworthy, 2000: 87).

과 연관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퍼스의 탐구 이론과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통해 검토한다.

### III. 퍼스의 탐구 이론과 AI 활용의 인식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퍼스의 탐구 이론을 토대로 AI 활용을 인식론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인식론이란 지식 자체에 관한 지식을 얻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지식을 얻을 때는 관찰이나 경험 그리고 직관 등을 통해 지식의 근거를 찾거나 다른 어떤 근거를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Philosophy”, 2015). II 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행 17:31)는 선포를 토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심에서 출발하여 탐구를 통해 믿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체계화한 퍼스의 탐구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영역에 적용하여 검토한다. 이에 더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확장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 1. 퍼스의 탐구 이론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퍼스는 믿음을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희, 2017: 46). 첫째, 믿음은 심리적이자 행위적이다(이윤희, 2017: 46). 이는 개인의 내면적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믿음이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존재론적이다(이윤희, 2017: 46). 이는 믿음이 반복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며,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는 순간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믿음은 습관처럼 작용하는 행동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Peirce(1877)는 의심과 믿음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주지만, 그 작용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다(Peirce, 1877: 5).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믿음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특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 자체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한다(Peirce, 1877: 5). 반면, 의심은 불안한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든다(Peirce, 1877: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영역으로 가길 원한다(Peirce, 1877: 4-5).

이윤희(2017)은 퍼스의 탐구 이론을 연구하면서, 퍼스가 믿음과 의심이 상호 의존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이윤희, 2017: 46). 왜냐하면 습관을 통해 형성된 믿음은 다른 관계를 통해 의심을 불러오고, 의심은 탐구를 촉구하며, 탐구 과정에서 과학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진리로 도출되어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이윤희, 2017: 46-47). 특히 퍼스가 말하는 탐구 과정은 습관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는 인간이 습관을 통해 사고 과정을 연결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이윤희, 2017: 47). 즉, 인간의 사고 체계는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믿음의 영역으로 발전하며(이윤희, 2017: 47), 이는 퍼스의 탐구 이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퍼스는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인간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끈기의 방법(Method of Tenacity)을 사용할 수 있다(Peirce,

1877: 6-7). 이는 인간이 원하는 답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믿음을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Peirce, 1877: 6).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이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Peirce, 1877: 6).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충동(social impulse)이 이 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에 따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 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Peirce, 1877: 7). 따라서 이 방법은 개인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Peirce, 1877: 7).

둘째, 인간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권위의 방법(Method of Authority)을 사용할 수 있다(Peirce, 1877: 7-8).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신학적, 정치적 교리를 유지하고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는 수단이 있었다(Peirce, 1877: 7). 이 방법은 끈기의 방법보다는 좀 더 좋고 정신적, 도덕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Peirce, 1877: 8). 하지만 어떤 국가나 기관도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관점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Peirce, 1877: 8).

셋째, 인간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선험적 방법(A Priori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Peirce, 1877: 8-9).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선호 작용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봄으로써 자연적인 원인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Peirce, 1877: 8).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에 동의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한다(Peirce, 1877: 8). 또한 이 방법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방법보다 더 지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을 포함한다(Peirce, 1877: 8). 하지만 선험적 방법의 한계점은 인간이 탐구를 취향의 발달과 유사한 관점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며, 인간은 취향이라는 영역에서 각자의 관점을 토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Peirce, 1877: 9).

넷째, 인간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Peirce, 1877: 9-10). 이 방법은 인간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적 영속성(external permanency)에 의해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Peirce, 1877: 9). 이는 인간의 의견과 완전히 독립적 특성을 가진 실재하는 사물(real things)이 존재함을 말한다(Peirce, 1877: 10). 이 실재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은 지각의 법칙을 활용하여 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Peirce, 1877: 10). 이 방법은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으며 집단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Peirce, 1877: 10).

퍼스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과학적 방법을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과학적 방법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의견이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Peirce, 1877: 12).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퍼스는 종교적 믿음이 실천의 영역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토대로 어떤 형태의 종교적 믿음은 형이상학적 탐구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Cantens, 2006: 103-104). 즉, 퍼스는 과학적 탐구가 종교적 믿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퍼스의 철학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퍼스는 인간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IV의 파스칼의 관점과 연관지어 고찰한다. 둘째, Melvil(1966)에 따르면 퍼스는 진리를 “의심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정의했는데, 만약 과학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명하지 못한 상태 자체를 진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Melvil, 1966: 41).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이 객관적인 탐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진리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 2. AI를 활용한 탐구의 유용성과 한계

퍼스의 탐구 이론의 내용을 토대로, 본 절에서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하려고 한다. 이어 활용가능 분야와 활용을 지양해야 하는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윤희는 퍼스가 믿음과 의심이 상호의존성을 띤다고 표현했음을 주장했다(이윤희, 2017: 46). 이는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심을 해결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찾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의심을 해결했다. 박영진(2026)은 국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국민들의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도와 반응을 분석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사람들이 AI를 향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일상에서 활용하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영진, 2026: 127). 최숙영(2024)은 생성형 AI가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최숙영, 2024: 24), 이는 AI를 활용한 탐구를 제외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AI의 일상화로 인해 교회에서도 AI 활용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 목회자를 대상으로 AI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수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목회자가 전부 AI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목회자 중에서는 AI 활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9). 성도들은 어떠한가? 성도들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찬성하거나 신중함을 곁들여 보이는 입장을 취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9). 하지만 성도는 특정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을 찬성하기도 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9-10).

이처럼 교회 사역에서, 나아가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박영진은 그의 연구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결정 위임(delegating decisions to AI)’ 현상<sup>12)</sup>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진, 2026: 146). 그는

---

12) 박영진은 선행 연구를 통해 AI를 활용할 때 나타나는 결정 위임의 개념을 “AI를 의존하며 신뢰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박영진, 2026: 131).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AI를 향한 의존성을 보이거나, AI가 도출한 결과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박영진, 2026: 131~133).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의 기초를 습득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의 주장 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knowledge)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를 전제하여 인간은 AI를 활용하되 끊임없이 질문하고 AI가 도출한 결과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박영진의 연구는 퍼스가 비판한 중세 철학자들의 태도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퍼스는 중세의 철학자들이 모든 지식의 근거를 권위에서 파생된 기초에 의존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이다(Peirce, 1877:1). 이를 AI 사용에 적용해보면, AI가 도출하는 결론을 검증 없이 수용하는 것이 AI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것에 해당하며(박영진, 2026: 131), 이는 퍼스가 비판한 중세 철학자들의 태도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퍼스는 탐구는 끊임없는 의심이 기반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퍼스가 말하는 의심이란, 인위적인 의심이 아니라, 기존 믿음이 실제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Peirce, 1877: 4-5). 의심은 탐구심을 일으키고, 인간은 의심으로부터 오는 불완전한 감정을 지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려 한다(Peirce, 1877: 5-6). 이를 통해 인간은 안정된 상태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Peirce, 1877: 6).

여기서 AI는 인간이 탐구하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끊임없는 탐구 과정 속에서 인간은 A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검증함으로써 의심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의 결과가 100%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그것을 검증하려 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특히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성경의 역사나 교리 개념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AI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 검증은 일반적인 주석, 조직신학 서적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인터넷 검색이나 신학 논문 검색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퍼스의 철학에는 한가지 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퍼스는 종교적인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Cantens, 2006: 103-104), 개인의 영적 체험을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Peirce, 1877: 9).<sup>14)</sup> 즉, 퍼스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관하여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퍼스의 탐구 이론만으로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AI 사용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기에, 본 연구의 논지를 보완하기 위해 IV장에서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추가로 논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완할 것이다.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 기반 요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

첫째, 성령은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Grudem, 박세혁 역, 2024: 1130). 구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1)이며, 신약도 말씀을 기록한 모든 저자를

13) 박영진은 AI의 사용자의 도메인 지식이 부족할수록 AI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박영진, 2026: 131). 그러므로 “인간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론”은 합당하다.

14) 퍼스는 개인적 영감은 “끈기의 한 형태(a form of the method of tenacity)”라고 보았다(Peirce, 1877: 9).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요 16:13)하셨기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Grudem, 박세혁 역, 2024: 1130).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고전 2:10)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Grudem, 박세혁 역, 2024: 1136).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롬 10:9) 것이 필요하다. 이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롬 8:16)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Grudem, 박세혁 역, 2024: 1136).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탐구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마음에 믿는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적이다.

정리하자면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탐구의 유용성과 한계를 논할 때, 퍼스의 이론이 본 연구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는 퍼스의 탐구 이론만으로는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AI의 활용의 모든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믿음이 사고의 반복을 통해 사고 과정을 통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순간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지지했다(Peirce, 1877: 5). 하지만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퍼스가 주장했듯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단 하나의 증거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포한 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1)이다. 즉, 사도들이 가졌던 단 하나의 증거는 부활이다. 이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본(요일 1:1) 경험을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퍼스의 탐구 이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본 연구의 전체 관점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장에서 파스칼의 철학을 인용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보완할 것이다.

#### IV. 신앙의 고유 영역에 대한 파스칼의 이해와 AI 활용 가능성

본 장에서는 퍼스의 탐구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논지를 강화한다. 퍼스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의 영적 체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Peirce, 1877: 9). 그의 탐구 이론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관점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기에, 기독교 세계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살펴보고, 지식을 알고 탐구를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초월적 존재이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본 연구의 논지를 강화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두 이론을 조합하여 신앙과 AI의 양립 가능성을 살펴본다.

## 1.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

파스칼(1995)은 존재의 영역을 ‘물질(body)의 질서’, ‘정신(mind)의 질서’, ‘마음(charity)의 질서’로 구분했다(Pascal, 1995: 91). 파스칼에 따르면 이 세 질서는 본질적으로 각각 다른 계층에 속한다(Pascal, 1995: 91). 모든 물질(all bodies)을 전부 합쳐도 하나의 작은 사고(little thought)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모든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합쳐도 참된 자비심(true charity)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없다(Pascal, 1995: 92). 이 구분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I장에서 살펴본 퍼스의 과학적 방법과 AI는 정신의 질서 안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이해하는 정신의 질서는 앎(knowing)과 발견(discoveries)의 영역이다(Pascal, 1995: 91-92). AI가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파스칼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것은 마음의 질서에 속한다. 파스칼은 “마음에 이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며, 인간은 이것을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Pascal, 1995: 121). 이를 토대로,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했다(Pascal, 1995: 122). Lee(2009)에 따르면 파스칼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은 감정과 사고 그리고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의미한다(Lee, 2009: 342)

그렇다고 해서 파스칼이 이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을 초월한 무한한 수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ascal, 1995: 53). 이는 파스칼이 이해하는 이성을 정확히 설명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Pascal, 1995: 53).

파스칼은 이성과 믿음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모든 것을 이성에 복종시킨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성의 원칙을 어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Pascal, 1995: 51). 파스칼이 말하는 균형은 본 논문의 논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AI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안에서 AI를 탐구의 도구로 활용하되 마음에 존재하는 믿음은 성령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다”고 말했다(Pascal, 1995: 54). 이는 II장에서 살펴본 **יְהוָה**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성적 논증으로 정신에, 은총으로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주시는 것”라고 이해했다(Pascal, 1995: 51).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은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Lee, 2009:

340). 은총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심어준다(Lee, 2009: 340). 이러한 원리는 AI가 정신적 질서에는 작동하지만, 마음에 질서에 속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AI의 능력 밖이라는 입장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본 절의 논지를 정리하면, 파스칼의 철학은 “실존적 확신(knowing God by acquaintance)”을 추구했다(Lee, 2009: 342). 이는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고, 말씀과 은혜안에 머물며,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Lee, 2009: 342). 하지만 파스칼은 이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이해하는 이성은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이다(Pascal, 1995: 53). 파스칼의 철학을 토대로 AI를 정의하면, AI는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스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의 영역이며, 이는 정보 수집 및 확인, 정보 전달 등 지식을 습득하는 영역에서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 2. 신앙의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

III장에서 다루었던 퍼스의 탐구 이론과 IV장에서 다룬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철학의 공통점은 모두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퍼스도 의심은 탐구를 촉구하고, 탐구를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Peirce, 1877: 4-5), 파스칼은 이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고 논증했기 때문이다(Pascal, 1995: 53). 이들의 견해는 모두 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이성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도 명확하다. 퍼스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이윤희, 2017: 47; Peirce, 1877: 5-6), 파스칼은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야 믿음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Lee, 2009: 340). 이는 퍼스와 파스칼의 철학의 결정적 차이이다.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퍼스의 관점은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관한 것은 신앙과 AI의 양립 가능성을 논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III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믿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며(요 14:26), 이것이 성경적이다.

퍼스와 파스칼의 이론을 조화하여 **רִמְסָר/רִמְסָר**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롬 10:9). 하지만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분을 향한 신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습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비로소 인간의 삶에서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신앙과 AI는 양립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과 묵회 영역에서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를 먼저 제시한다. 첫째, AI를 활용하여 성경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정보, 역사의 흐름 등 인간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AI를 활용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sup>15)</sup> 둘째,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 자료가 필요하다면 AI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설교자가 원하는 그림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명확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sup>16)</sup> 셋째, 교회의 행정 영역에서 사역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AI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신앙과 목회 영역에서 AI를 주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부분도 세 가지 예시가 있다. 첫째, 목회자가 AI를 사용하여 설교문을 작성하는 행위이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성도들은 설교를 AI로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6). 설교는 목회자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늘 말씀을 묵상함을 토대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다(김창훈, 2021: 373). 하지만 AI를 통해 설교문을 작성한다면 설교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논리적으로 조합해놓은 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정재웅, 2024: 79-84). 둘째,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문을 AI에게 작성을 지시하는로 행위이다. 이는 AI를 사용하여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다(권성수, 2016: 230). 하나님은 영이시며, AI에게는 영이 없으므로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AI가 기도문을 모방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기도는 모방할 수 없다. 셋째, 신앙인이 성경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AI는 100%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이 경우에는 AI가 도출하는 결과에 관하여 2차 검증이 필요하다.<sup>17)</sup> 예를 들어, 출처를 기반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Logos 스터디 어시스턴트’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출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는 무분별한 AI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용하여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경 배경지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성경 각 권의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초신자의 경우에도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공부하며 궁금한 부분을 목회자, 사역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하면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창세기 2:15의 רָמַשׂ/רָבַע 어휘 분석과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퍼스의 탐구 이론과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통해 신앙과 생성형 AI의 양립 가능성을 논증했다.

15) 다만 이 결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추가로 비교하는 2차 검증이 필요하다(박영진, 2026: 147 참고).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인간은 완벽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16) 양질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 자료를 신뢰하기보다 AI의 답을 더욱 신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상태는 AI를 향한 의존성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박영진, 2026: 131-133, 136 참고)

17) 이 부분은 박영진의 논문의 통계 자료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박영진, 2026: 126 참고).

II장에서는 창세기 2:15의 עֲבָדָה와 שָׁמַר의 뜻을 분석하여, 이 두 단어가 단순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עָרַץ의 용례를 함께 고찰하여 예배의 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성경적 근거를 두고 신뢰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III장에서는 퍼스의 탐구 이론을 검토하여, 인간이 의심에서 출발하여 탐구를 통해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AI는 정보 수집과 검증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동시에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퍼스가 비판한 권위로부터 파생된 기초에 의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퍼스의 탐구 이론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다루지 않으므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논리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통해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IV장에서는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통해 퍼스의 한계를 보완했다. 파스칼은 존재의 영역을 물질의 질서, 정신의 질서, 마음의 질서로 구분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정신의 질서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AI는 정신의 질서의 영역에서 탐구를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마음의 질서에 속하는 믿음에 영역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있음을 논증했다. 나아가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지양해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론을 말하면 신앙과 AI는 양립할 수 있다. 다만 AI의 역할은 파스칼이 말하는 정신의 질서의 영역, 즉 자료 수집, 정보 정리 등의 영역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sup>18)</sup> 마음의 질서에 속하는 영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성령의 조명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며, 이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파스칼의 관점에서 은총은 인간의 마음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다(Lee, 2009: 340). 이를 본 연구의 논지에 적용하면, AI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게(know)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believe) 그분과 교제(fellowship)하게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퍼스와 파스칼의 철학에 한정하여 논의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철학자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둘째, AI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으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예: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분야별 AI 활용 효과 분석)는 미비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의 활용의 범위와 한계점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나아가 AI 시대에 성도들에게 AI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18) 이 부분은 퍼스의 탐구 이론도 일부 적용된다.

## 참고문헌

- 강성열 역 (2014).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G. K. Beale. (2004).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서울: 새물결플러스.
- 권성수 (2016).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대구: 생명사역훈련원.
- 기동연 (2008). **성전과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 서울: 생명의 양식.
- 김영옥 역 (2012).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Williams, R. J. (2007). *Williams' Hebrew Syntax*. 서울: 그리스심
- 김창훈 (2021). '뉴노멀' 시대의 도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학지남**, 88(4), 311-381.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2026). **기독교통계(329호) - 목회자의 AI 사용 실태**. 목회데이터연구소.
- 박세혁 역 (2024). **조직신학 1권**. Grudem, W. A. (2020). *Systematic Theology*, (2nd ed.):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서울: 복있는사람.
- 박영진 (2026).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31(1), 125-154.
- 송하윤·이병준 (2026). **주요국의 AI 사용 실태와 한국의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윤희 (2017). **찰스 샌더스 퍼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재웅 (2024). 기독교 설교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설교한국**, 19, 45-91.
- 채정태 역 (2016). **창세기 I, NICOT 시리즈**. Victor P. Hamilton. (1990).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서울: 부흥과개혁사.
- 최숙영 (2024). 생성형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9), 23-33
- 한정건 (2016). **창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설립 60주년 기념 성경주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 Brown, F., Driver, S. R. & Briggs, C. A. (1997). *Enhanced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 Botterweck, G. J. & Bergman, J. (1986). **כָּתַב**. in Ringgren, 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Green, D. E.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Cantens, B. (2006). Peirce on Science and Relig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59. 93-115.
- Dooyeweerd, H. (1984).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ol. 2. The General Theory of the Modal Spheres*. Trans. Freeman, D. H. & de Jongste, H. Jordan Station: Paideia Press.
- Gabrielson, T. A. (2014). Obedience. in Mangum, D. (Ed.) *Lexham Theological Wordbook*. Bellingham: Lexham Press.
- Garcia-López, F. (2006). רָמַץ. in Botterweck, G. J., Ringgren, H. & Fabry, H. -J. (Eds.) (1999).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Green, D. E.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oldsworthy, G. (2000). Relationship of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in Alexander, T. D. & Rosner, B. S. (Eds.).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Harmon, M. S. (2020). *The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Tracing a Biblical Theme through the Canon*.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54. Downers Grove: IVP Academic.
- Harris, R. L., Archer, G. L. Jr. & Waltke, B. K. (Eds.) (1999).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 <https://faith4.net/2026/04/23/imb-faithbot-600k-users/> (검색일 2026. 5. 4.) Faith4 2026. 4. 23 일자. “미국 납치레회 IMB AI ‘페이스봇’ 60만명 사용... 선교·신앙 상담 보조 도구 주목.”
- Jeremias, J. & Zimmerli, W. (1964). παῖς Θεοῦ. in Kittel, G., Bromiley, G. W. &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654-717.
- Lee, R. C. K. (2009). The Pascalian Heart and the Kierkegaardian Passion: On Faith and Subjectivity. *Evangelical Quarterly*, 81(4), 338-355.
- Matthews, K. A. (1996). *Genesis 1~11:26*. vol 1A.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MacArthur Jr., J. F. (2014). *John MacArthur Sermon Archive*. Panorama City: Grace to You.
- McCaulley, E. (2014). Worship. in Mangum, D. (Ed.). *Lexham Theological Wordbook*. Bellingham: Lexham Press.

- Melvil, Y. (1966). The Conflict of Science and Religion in Charles Peirce's Philosophy.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2(1), 33–50.
- Pascal, B. (1995). *Pensées*. Trans. Krailsheimer, A. J. London: Penguin Books.
- Peirce, C. S. (1877). The Fixation of Belief. *Popular Science Monthly*. 12. 1–15
- “Philosophy” (2015). *Compton's Encyclopedia*. Chicago: Compton's Encyclopedia
- Ringgren, H., U. Rütterswörden, & Simian-Yofre, H. (1999). רַבִּי. in Botterweck, G. J. & Fabry, H. -J. (Eds.) (1999).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Scott, D. W.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376–405.
- Torrey, R. A. (1898). *What the Bible teaches a thorough and comprehensive study of what the Bible has to say concerning the great doctrines of which it treats*. New York, Chicago: Fleming H. Revell Company.
- Waltke, B. K. & O'Connor, M. P. (1990).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 Williams, W. A. (2014). Agriculture. in Mangum, D. (Ed.) (2014). *Lexham Theological Wordbook*. Bellingham: Lexham Press.

## 논문초록

본 논문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먼저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성형 AI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AI 사용의 신학적 정당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AI 관련 기존 신학적 논의가 "신앙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적 근거와 기독교 철학 관점에서 함께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세기 2:15의 **רִמָּשׁ/רָבַע** 어휘 분석과 신학적 의미 고찰을 통해 창조된 인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퍼스의 탐구 이론을 통해 AI를 활용한 탐구를 인식론적으로 고찰하며,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를 통해 신앙의 고유 영역을 구명(究明)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성형 AI와 신앙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신앙, 창세기 2:15, 퍼스의 탐구 이론,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